FX Market Daily

2025-07-02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90원 상승한 1,355.90원에 마감

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90원 상승한 1,355.9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00원 상승한 1,351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부터 환율은 네고 물량 유입에 하락하여 1,348.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. 다만, 결제 수요 유입에 상승 전환하며, 1,355.9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 중 변동 폭은 8.8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4.03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51.00	1359.50	1348.50	1355.90	1352.60
엔화	937.07	948.28	935.13	945.03	-
유로화	1591.18	1600.91	1588.99	1600.76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2.44	-7.84	-15.52	-28.5
결제환율(수입)	-2.1	-6.88	-13.59	-24.99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글로벌 달러 약세에...1,35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6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5.90) 대비 0.55원 상승한 1,353.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5월 구인건수는 776.9만건으로 예상치(730.0만건) 및 전월치(739.5만건)를 상회했다. 미국 6월 제조업 PMI는 49.0으로 기준치(50.0)를 하회했으나, 예상치(48.8) 및 전월치(48.5)를 웃돌았다.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며, 관세인상 관련 데이터를 매 회의마다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, 일본에 대한 관세 위협 발언을 했다. 미 경제지표 영향 등에 미국 2년물은 5.20bp, 10년물은 1.50bp 상승해 각각 3.775%, 4.244%를 기록했다.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연준 금리인하 기대 및 관세 위협에 약세를 지속하며, 0.13 하락한 96.65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에 동조하여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.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 기조 연장 및 수출업체 네고 물량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다만, 수입 결제 등 달러 저가매수 수요는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

1349.80 ~ 1359.40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1759.9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55원↑
- ■ 美 다우지수 : 44494.94, +400.17p(+0.91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5.16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897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